

SIII-1-2

Antimicrobial Resistance of Bacteria isolated from Clinical Specimens in Korea

Yunsop Chong

Dept of Clinical Pathology,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
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became a worldwide problem. In Korea, the proportions of methicillin-resistant *S. aureus* have been >60%, since 1991 in many hospitals. Penicillin-resistant *S. pneumoniae* reached a rate of >70%. The vancomycin-resistance rate of *Enterococcus* was <1% in 1997, but may increase inevitably in the near future. The fluoroquinolone-insensitive rate of *N. gonorrhoeae* increased to 61% in 1996. Recent problems with gram-negative bacilli include: fluoroquinolone-resistant *E. coli* (39%), the 3rd generation cephalosporin-resistant *K. pneumoniae* (38%), and multiresistant *E. cloacae* and *A. baumannii*. *P. aeruginosa* started to show resistance even to the most potent β -lactam, imipenem. In conclusion, increased efforts are required, not only to preserve the activity of existing drugs, but also to develop new ones in Korea.

SIII-1-3

한국의 내성결핵 실태

김 상 재*

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

전국 결핵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와 보건소에서 진단된 환자중 결핵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로 부터 분리 배양된 인형결핵균으로 각종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약제에 대한 내성률은 그 약제의 사용정도에 비례하고, 전체 내성률은 결핵 치료효율과 역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1965년에 실시한 1차 결핵 실태조사의 약제내성률은 38.0% 이었고 그후 다제내성은 증가했지만 전체내성률은 큰 변화가 없다가 1980년에 48.0%로 증가하였다. 그후 단기 화학치료요법의 도입등으로 결핵치료효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내성률은 점차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30.8%, 1990년에는 25.3%로 밝혀졌다. 초회내성률도 비슷한 변화추세를 보여주어 1965년에는 26.2%, 1970년에 23.9%, 1975년에 20.1%, 1980년에 30.6%, 1985년에 17.4%, 1990년에 15.0%, 1994년에 11.3%로 밝혀졌다. 약제 내성률 조사는 치료효율 평가에 유용할 뿐 아니라 환자 치료관리 대책 마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